



# 사료선택은 품질위주로

— 가남농장 김 수정 씨와 —

〈취재부〉



△ 김 수정씨

어려운 때 일수록 원가절감이 전실히 요구되는 법. 상품의 가격이 낮으면 생산성향상이나 경비절감 등을 통해 생산비를 낮추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요소의 효율적인 관리와 배분은 무척이나 중요한 문제이다.

사료는 여러 생산요소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전체 생산비 중 사료비가 60~70% 이상을 점하는 것만 보아도 그 중요성은 가히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사료의 선택과 관리는 결코 소홀히 다루어서는 안될 문제이며, 경영상의 손익에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한 것이다.

이에 본지에서는 춘천 구구회 회원인 김 수정씨의 '가남농장'을 찾아 사료의 선택과 사양관리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았다.

## 사료선택은 품질위주로

가남농장의 현재 사육수수는 산란계 2,000수와 육계 1,000수로 비록 소규모이기는 하나, 385일령에서 85%의 산란율을 기록할 정도의 충실한 사양관리로 인근에서는 정평이 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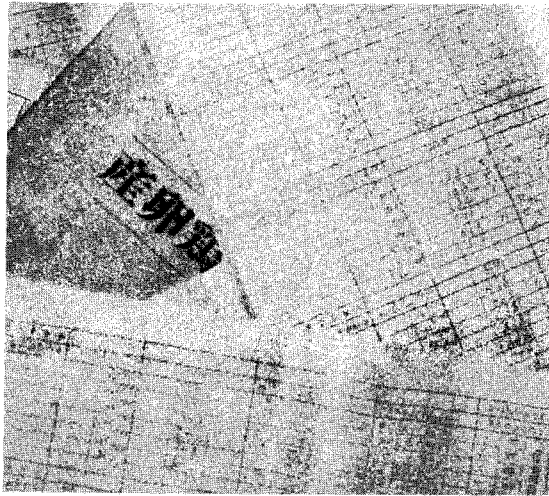
'사료는 어디까지나 품질을 기준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하면서 모두를 뺀 김수정씨는 남의 말만 듣고 주관없이 사료를 선택하거나, 잘 아는 사이라 해서 거절하지 못하고 마지못해 구입해 쓰는 풍토가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전혀 이해하지 못 하겠다고 말을 이으면서 전에는 육감적으로 선택해서 쓰던 사료를 타농장과 비교를 통해 서로의 의견교환으로 의상 등 가격조건 보다는 질적인 문제를 따져 비교실험을 통해 가격과 품질이 좋은 사료를 썼을 때 양축가에게 돌아오는 이익

이 많은 것을 찾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한다. 이 농장에서도 전에는 주먹구구 식으로 사양을 했지만 올해 들어서 부터는 철저한 기장을 통해 가능한 한 기록을 남겨 연구노력을 기울리 하지 않는단다.

과거에 평균 초산일령을 2주일이나 앞둔 계군이 30%의 산란율을 기록하여 애를 먹었는데 이는 육성사료의 영양수준이 지나치게 높았던 때문이 아니겠느냐며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을 하면서 그 덕분에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제한급이를 스스로 터득했다며 웃는다.

## 질병은 예방에 치중

일단 입추를 한 뒤에는 도시까지 절대로 사료를 바꾸 먹이지 않고 큰 하자가 없는 메이커의 제품만을 사용하 그래야만 닭에 있어서 스나 그 밖에 사료의 장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당히 설득력있는 이론 약은 별로 쓰지 않.



△ 기록을 하는 습관은 경영합리화를 위한 지름길이다(사진은 김 수정씨의 농장일지)



△ 정성을 다해 애정을 갖고 돌보는 계사는 사양가들에게 높은 수익성을 가져다 준다.

맞춰 비타민급여는 철저히 해 두므로써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약을 꼭 사용해야 할 경우에는 미리 투약을 해 두므로써 질병등의 피해에 앞서 예방을 철저히 하여 약값도 절감되고 닭도 보호할 수 있다고 말한다.

사양관리 기술의 70% 이상은 경험에서 얻었다고 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성이라고 자신있게 말한다. 계사의 온도 점검도 온도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피부로 느껴 덥고 추운 것을 확인한다고 한다. 때로 우리는 관리자의 입장에서 온도를 측정하고 또 환경을 유지하지만 선행해야 할 것은 관리자 보다는 닭의 사육환경에 입각해 유지를 해주어야 할 것이다. 자신이 추우면 닭들도 추울 것이고 자신이 더위를 느끼면 닭들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냐는 김 수정씨의 말에는 양계인의 참다운

자세가 담겨 있는 듯했다. 또한 자기의 경영규모는 소규모인 만큼 직접 알을 수거하면서 닭을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자랑도 해 본다.

###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충실한 경영만이 수익의 지름길

아울러 자신이 바라는 바는, 우선 확고한 축산정책이 수립되어 정부의 축산시책이 하나의 지표를 가지고 한 방향으로 지속 돼 나갈때 축산의 발전은 물론 자꾸 거듭되는 난항을 타개하고 양계산업에 확고한 질서를 수립하여 제도적으로도 양계산업 보호정책이 가능할 것이며, 간혹 느끼는 일로 일부사료 원료중 번질된 원료의 혼합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사전에 양축가들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사료공장 등 제 품공급자의 자세를 촉구하면서 제도적으로 해결을 해 주었으

면 하는 바람이며 사료회사 측에서는 계속 꾸준하고 변동없는 품질의 사료를 공급해 주어 밀고 제품을 구입하는 가운데 생산자는 생산기술 향상에만 전념할수 있는 길이 속히 왔으면 하는 마음이 아쉽다고 피력한다.

양계업에 대한 소신을 묻자 자신은 오직 욕심내지 않고 자기 능력에 맞는 규모로 경영해 나가며, 충실한 관리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김수정씨의 표정에는 어두운 그늘이라고는 전혀 없었다.

마찬가지로 기자의 마음 속에도 자기의 능력 범위 안에서 자신의 사업을 충실하게 영위해 나가는 성실한 경영자세만이 안정 양계산업 발전에 밀바탕이 될것을 믿는 마음에 김수정씨의 태도가 참다운 양계인의 자세라고 깊이 느껴졌다.

〈金熙鎭〉